

동천동 M씨댁

Dongcheon-dong M-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35-40
지역지구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658㎡
건축면적	131.51㎡
연면적	310.50㎡
건폐율	19.99%
용적률	37.05%
주차대수	2대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리멘조)
내부마감	바닥-온돌마루, 비닐계시트, 대리석, 자기질타일, 화강석/벽-고급벽지, 도기질타일, 수성페인트 /천장-고급천장지,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THK18 로이복층유리, 지정색볼소수지도장, 천연사암 혼드마감, 목재루버, 적삼목위 오일스테인
구조	하이구조
전기	(주)극동문화전기설비
설비	INNO Eng 기술사사무소
시공	주식회사 휴스텍
건축주	김정숙
설계담당	최우석, 최교식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재성)

용인 수지지역의 고기리로 넘어가는 언덕 배기에 제법 큰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중 가장 높은 대지에 M씨 주택이 들어서 있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탁 트여있고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한 집짓기 좋은 대지이다. 가족구성은 M씨 부부와 고교생 아들이 하나 있고, 모던한 그림과 조각을 많이 모아놓은 미술애호가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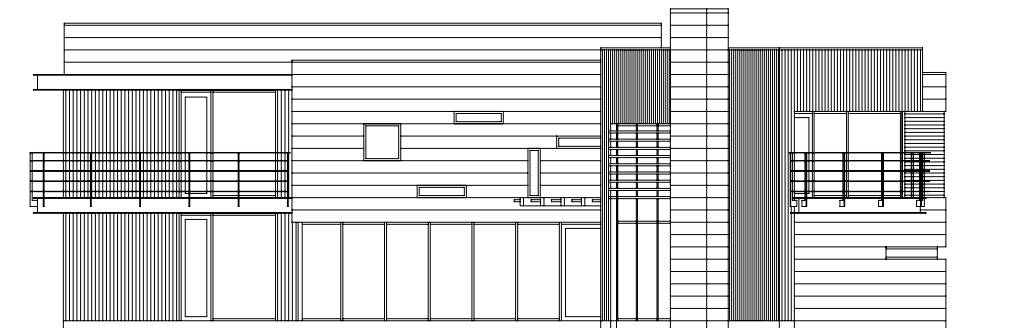
주택은 가족 간의 생활의 장소임과 동시

에 서로 소통하고,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서 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로 동의하였다. 건축주 가족은 오랜 시간동안 아파트에 살아서 방문만 열면 거실이고 거실에서 돌아서면 안방인 그러한 주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주택에서는 가족 간에 프라이버시나 커뮤니티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서로 동의하였다.

우리사무소에서 항상 주장하는 설계의 과정은 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건축의 전체적인 존재의 방식에서부터 구체적인 좌향과 공간의 구성의 틀과 재료, 접합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논리적이든 직관적이든 항상 건축주를 포함한 작업팀이 공감할만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주택설계에서 가장 많은 논의의





정면도

대상이 된 것은 거실에서의 조망과 접지성의 선택 문제였다. 즉, 계획 대지가 교외에 위치해 있지만 높은 곳에 있어서 조망이 상당히 좋은 대지라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대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전원주택지로서 실외활동(outdoor life)하기에 적합한 대지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을 어떻게 주거로 끌어들이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되면서 이 논점은 거실과 마스터 존을 2층에 둘 것인가 혹은 1층에 두어 접지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다. 결국 주로 아파트에서 살았던 클라이언트 가족을 위해 접지성을 선택하였다. 1층 바닥의 레벨을 최대한 마당의 레벨에 맞춰서 거실과 복도의 바닥이 외부의 데크와 잔디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옥외 공간이 단순히 시각적인 보여지는 정원이 아닌 구체적인 옥외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 내부를 나누고 연결하였다.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지로 집을 옮겨 생활하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옥외 가정생활

이 가능하다는 측면일 것이다. 2층에서 옥외로의 전망을 위한 시선은 거실 상부에 위치한 서재공간을 제외한 다른 실과 복도에서는 최대한 절제하여 좋은 전망을 위한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하였다.

단독 주택으로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1층의 거실은 전체 매스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된 매스에 위치시켜 다른 공간과 최대한 이격되도록 함으로써 집안에서의 공격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2층에 메자닌 공간을 걸어서 거실로의 확장된, 독서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확보하였다. 이때 분리된 매스를 본 매스의 직각이나 평행이 아닌 45도 정도로 틀어놓은 것은 서재에서의 전망을 고려한 것이며, 내부에서 풍부한 공간감을 얻을 수 있었다. 외부로의 시선은 가급적 모아서 집중시켰고, 벽면을 최대한 많이 남겨서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벽면을 확보하였다.

내외장 마감재로는 집의 성격을 고려해서 정하였는데, 특히 외장재로 라임스톤은 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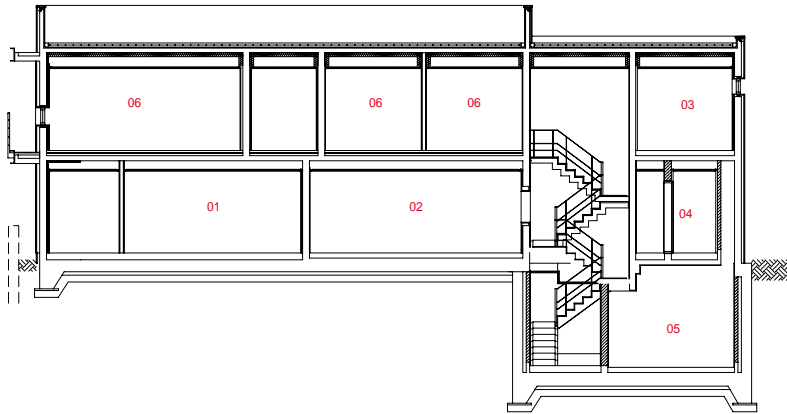




재료로서 따뜻함과 미니멀한 단정함을 갖고 있고 오일스테인을 칠한 적삼목은 전원주택의 편안함을 보여준다. 즉, 외장재를 통해서 현대적인 단정함과 전원의 푸근함을 담고자 했다. 1층의 거실과 복도가 만나는 지점의 데크 상부는 유리 캐노피를 달아서 맑은 하늘이 내부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시간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이 집과 이 집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가 생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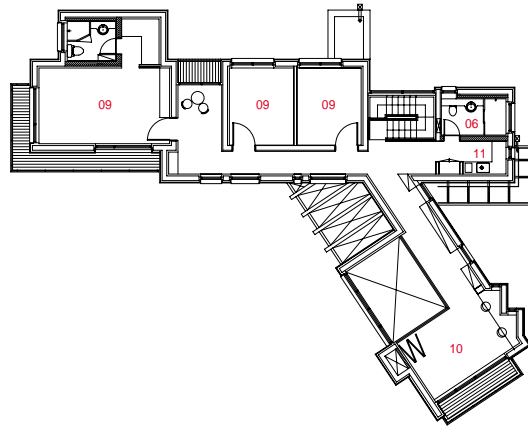


- 01. 부부침실
- 02. 주방 및 식당
- 03. 욕실
- 04. 손님화장실
- 05. 보일러실
- 06.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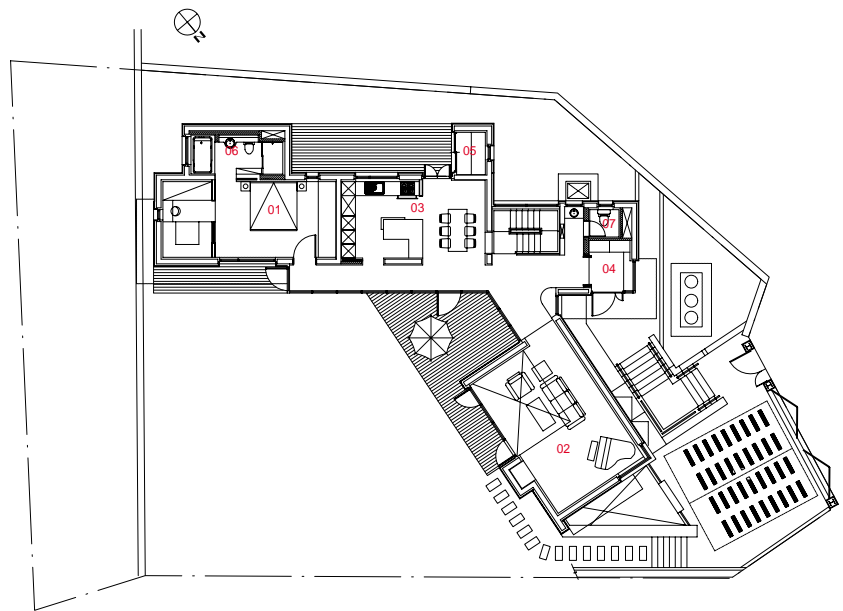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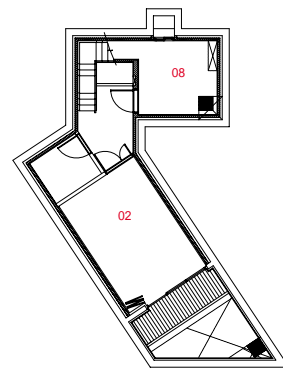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01. 부부침실
- 02. 거실
- 03. 주방 및 식당
- 04. 현관
- 05. 다용도실
- 06. 욕실
- 07. 손님화장실
- 08. 보일러실
- 09. 방
- 10. 서재
- 11. 간이주방